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일시	2021.11.29.(월)
비 고	# 공동배포 : 국무조정실, 식품의약품안전처, 교육부, 외교부, 법무부, 국립과학수사연구원, 보건복지부, 방송통신위원위, 대검찰청, 관세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		
담당부서	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	담당자	과장 신영희, 사무관 전홍규 (044-200-2379, 2380)
	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, 마약관리과	담당자	과장 김일수, 사무관 임상우 (043-719-2808, 2801) 과장 김정연, 사무관 송현수 (043-719-2893, 2892)
	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	담당자	과장 조명연, 사무관 박진욱 (044-203-6877, 6540)
	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	담당자	과장 이동준, 행정관 이승연 (02-2100-7264, 7255)
	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, 의료과	담당자	과장 박경선, 사무관 최형윤 (02-2110-3890, 3893) 과장 주소연, 사무관 최장훈 (02-2110-3611, 3388)
	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, 치료처우과	담당자	과장 이정민, 서기관 김충섭 (02-2110-3309) 과장 송중일, 사무관 김형식 (02-2110-3340, 3332)
	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	담당자	과장 김선춘, 연구관 박유진 (033-902-5410)
	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	담당자	과장 이두리, 사무관 김준범 (044-202-3870, 3872)
	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	담당자	팀장 김미정, 사무관 김기호 (02-2110-1560, 1564)
	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·조직범죄과	담당자	과장 홍완희, 사무관 김진학 (02-3480-2290, 2292)
	관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	담당자	과장 박천정, 사무관 현삼공 (02-510-1630, 1631)
	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	담당자	과장 윤정근, 경정 이주만 (02-3150-0141, 2171)
	해양경찰청 수사국 형사과	담당자	과장 이원재, 경감 박주식 (032-835-2058, 2161)

정부,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

금년도 3분기까지의 마약류 관리 성과도 함께 점검

□ 정부는 11월 29일(월) 정부서울청사에서 **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'마약류대책협의회'**를 **개최**하여, 올해 **마약류 관리 성과**를 **점검**하고 **'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'**을 마련하였습니다.

* 마약류대책협의회: 마약류문제에 대한 정부 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·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 (의장: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, 간사: 식품의약품안전처, 위원:국무조정실·기획재정부·교육부·외교부·법무부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방송통신위원회·국가정보원·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식품의약품안전처·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)

□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**주요 성과**로는,

○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**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**를 **집중 단속**함으로써 해외 **마약류**의 **국내 유입**을 **적극 차단**하였으며,

* 지난 7월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kg 적발 등

** [불법 마약류 적발량] ('20) 321kg(9월 176kg) → ('21.9월) 753kg

○ 의료용 마약류 **처방 정보**에 대한 **빅데이터 분석**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**자정노력을 유도**하고 이후 **선별·점검을 실시**한 결과 **오·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***하고 **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****하였습니다.

* [오·남용 의심 의사 수] 1차 서면경고 3,953명 → 2차 서면경고 1,215명(69.3% 감소)

** [적발률] ('20.9월) 36.2%(75개소/207개소) → ('21.9월) 52.7%(167개소/317개소)

○ 아울러, 마약류 중독자 **치료프로그램 개편***, **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****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·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습니다.

* 기본(16), 집중(40), 심화(134시간) → 기본(40), 집중(80), 심화(120시간 이상)

** 재활교육강사 195명 위촉 등

□ **'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'**은 **'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'**을 목표로, 아래와 같이 ▲불법마약류 밀반입·유통 근절, ▲의료용 마약류 오·남용 예방, ▲마약류 중독자 치료·재활 지원 확대, ▲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.

과제 1 불법마약류 밀반입 · 유통 근절

≪ 촘촘한 밀반입·유통 단속 시스템 연중 가동 ≫

○ **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·유통행위를 집중 단속**(법무부·대검찰청·경찰청)하고, **인터넷·가상자산을 이용**한 마약류 거래를 **집중 수사**하겠습니다.(경찰청)

※ 인터넷·SNS, 가상자산 이용 유통, 양귀비·대마 밀경작, 외국인 사범 단속 등

○ **대규모 마약류 밀수입** 등 **중대 범죄**를 **집중 단속**(대검찰청)하고,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**경제적 이익**도 철저히 **환수**하겠습니다.(대검찰청·경찰청)

○ **우범국가發 우편·특송·해상화물**을 **집중 검사**(관세청)하고, **선박을 통한 밀반입** 등 **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**하겠습니다.(해경청)

※ 국제여객선·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,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·외국인, 어선 내 마약류 투약 등

○ **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 삭제·차단***(방통위·경찰청)하고, **임시마약류 지정**을 통해 **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·유통을 조기에 차단**하겠습니다.(식약처)

※ 국내·외 포털 등 61개 사업자 참여, 마약·음란 등 불법정보 자율 차단 등

≪ 부처 간 협업 및 국제 협력·공조 강화 ≫

○ 우범정보 수집·공유 확대 및 공조수사 실시 등을 통해 **국내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**하겠습니다.(국정원·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해경청)

○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정보 교류 확대 등 **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**하겠습니다.(외교부·국정원·식약처·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해경청)

※ 유엔마약위원회(CND) 및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(HONLEA) 참여 등을 통해 정보교류 확대

과제 [2] 의료용 마약류 오·남용 예방

≪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≫

○ **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**로 **처방 단계 오·남용을 방지** 하고 의료인 대상 **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**로 **과다처방을 방지**하겠습니다.(식약처)

○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**의료용 마약류 오·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**하겠습니다.(식약처)

≪ 사용자 중심의 오·남용 예방 유도 ≫

○ **환자 스스로 오·남용**을 **예방**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*하고, 의사를 대상으로 **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·교육**을 실시하겠습니다.(식약처)

* 의료용마약류 부작용정보, 안전사용기준, 금기처방 및 다른 환자와의 비교통계 등

○ 오·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**서면경고제(사전알리미)**를 **확대**(식약처)하고, **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·남용 사례**를 **근절**하겠습니다.(법무부)

과제 [3] 마약류 중독자 치료·재활 지원 확대

≪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 강화 ≫

○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* 활용 등을 통해 **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**하고 **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****하겠습니다.(복지부)

*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확충(('21) 2.1억 → ('22) 4.1억)

** 지역사회 알코올, 마약, 게임, 도박 등 중독문제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(('21) 50개소 → ('22) 60개소)

○ **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**(국조실·법무부·복지부·식약처)하고, 마약류 사범의 **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**하겠습니다.(법무부·식약처·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)

≪ 마약류 중독자 치료/재활 지원 연계 강화 ≫

○ 마약류 중독자 **치료** 및 **치료재활 시설을 연계**(법부무·복지부·식약처)하고, **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교육 이수명령 집행**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(법무부)

○ **투약 충동 억제를 위한** 재범 고위험군 대상 **불시 약물검사를** 실시하고, **체계적인 마약류 교육**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.(법무부)

과제 4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

≪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 ≫

○ 마약류 전담 **조직·인력**을 **확대**와 병행하여 전문검사장비를 확충(관세청·경찰청·해경청·국과수)하고, **단속인력** 역량 제고를 위한 **전문교육**도 **확대**하겠습니다.(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해경청)

≪ 과학적·체계적 조사/분석 역량 향상 ≫

○ 마약류사범 통계,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·**점검 체계**를 **효율화**(대검찰청·관세청·식약처)하고, **임시·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***하겠습니다.(식약처·경찰청·국과수)

※ 성범죄 이용 마약류(GHB 등) 식별을 위한 감정기법 개발('~'23), 개발된 감정기법에 대한 현장 실증 병행 추진 등

○ **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을 지속 추진**하고, **국제 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추진**하겠습니다.(식약처)

≪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≫

○ **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*을 강화**(교육부·경찰청)하고, 청소년 등 **취약계층 대상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실시**(식약처·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·대검찰청·해경청)하고, **선호매체·홍보시기 등을 고려한** 전 국민 대상 **홍보**를 추진하겠습니다.(복지부·국정원·식약처·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·해경청)

※ 학교전담경찰관(SPO, School Police Officer) 중심, 시기별(신학기·방학)·대상별(중·고교생) 마약류 관련 특별 예방 교육 실시 등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**'마약류 대책협의회'를 중심**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**마약류 안전관리**에 만전을 기하고,

○ 이번에 수립한 **「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」**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**국민들이 마약류 문제**에서 안심할 수 있는 **안전한 사회**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<붙임> 마약류 단속 현황

붙임 **마약류 단속 현황**

□ 불법 마약류

○ **(전체)** ‘21.9월 기준 마약류 사범은 11,879명으로 전년동기(12,475명) 대비 4.8% 감소, 적발량은 753kg으로 전년동기(176kg) 대비 327.8% 증가

※ 마약류 사범(단위: 명) 및 적발량 현황(단위: g)



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0.9.	2021.9.
사범수	14,123	12,613	16,044	18,050	12,475	11,879
적발량	154,599	414,994	362,034	321,405	175,505	752,792

* ’21년은 부산항만 필로폰 404kg 적발(7월) 실적으로 예외적으로 큰 폭 증가

○ **(외국인)** ‘21.9월 기준 1,621명으로 전년동기(1,195명) 대비 35.6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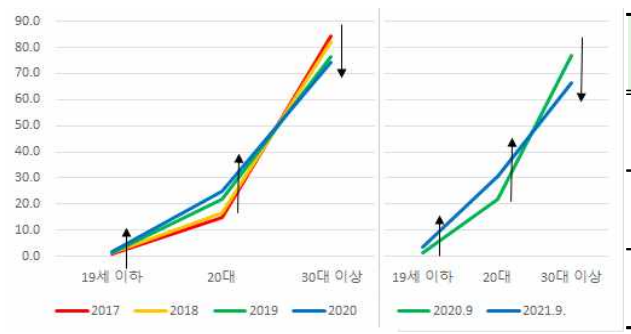
※ 외국인 사범 전체 및 출신국가별 현황(단위: 명)



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0.9	2021.9.
외국인 사범수	**932**	**948**	**1,529**	**1,958**	**1,195**	**1,621**
태국	315	302	551	885	544	632
중국	385	362	431	405	249	346
베트남	6	30	61	145	89	199

○ **(10~20대)** ’21. 9월 기준 **10대**는 358명으로 전년동기(179명) 대비 100% 증가, **20대**는 3,621명으로 전년동기(2,729명) 대비 32.6% 증가

※ 연령별 마약류 사범 수 및 구성비 현황(단위: 명(%)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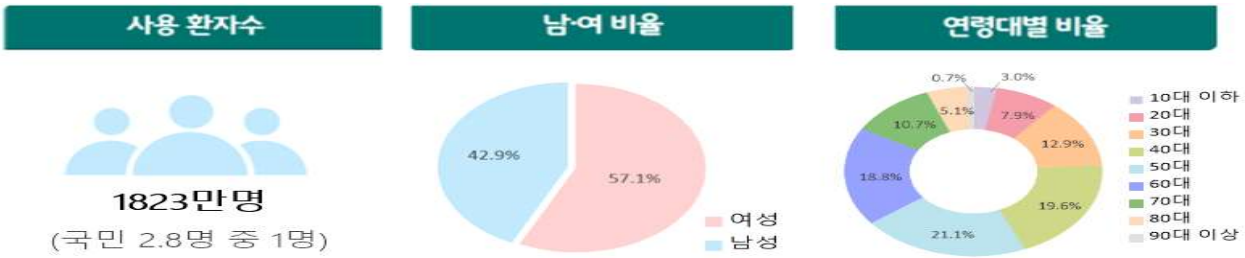
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0.9	2021.9.
10대	**119 (0.8)**	**143 (1.1)**	**239 (1.5)**	**313 (1.7)**	**179 (1.4)**	**358 (3.0)**
20대	**2,112 (15.0)**	**2,118 (16.8)**	**3,521 (21.9)**	**4,493 (24.9)**	**2,726 (21.8)**	**3,621 (30.5)**
30대 이상	11,892 (84.2)	10,352 (82.1)	12,284 (76.6)	13,244 (73.4)	9,574 (76.8)	7,900 (66.5)

□ 의료용 마약류

○ **(사용 현황)** 국민 1,823만명(약 3명 중 1명)이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음('20.7. ~ '21.6. 기준)

- 전국 약 4만개 의료기관, 약 10만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*

*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'18.5월 가동)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생산·유통·사용 내역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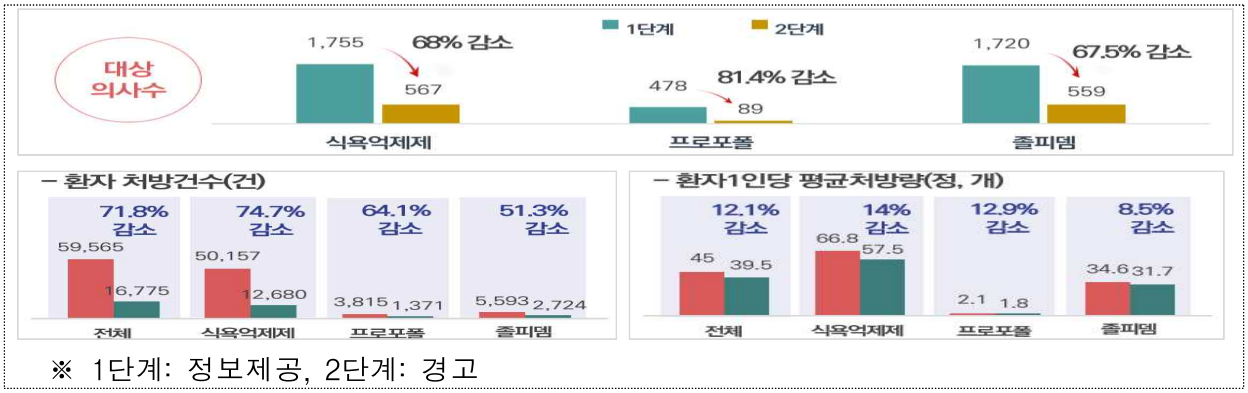


○ **(오·남용 사례)** '21. 9월 기준 적발건수는 167건으로 전년(147건) 대비 13.6% 증가, 적발률은 52.7%로 전년(47.8%) 대비 10.3% 증가



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1
적발률 (%)	21.5	18.6	38.9	47.8	52.7
점검 (개소)	176	118	293	307	317
적발 (개소)	38	22	114	147	167

○ **(오·남용 경고 효과)** 서면경고 후 오·남용 의심 처방 의사 수 69.3% 감소(3,953→1,215명), 처방 건수(71.8%)와 환자당 처방량(12.1%)도 감소



※ 1단계: 정보제공, 2단계: 경고

* (식욕억제제) 1단계('20.12.), 2단계('21.3.), (프로포폴) 1단계('21.2.), 2단계('21.5.), (졸피뎀) 1단계('21.3.), 2단계('21.6.)